

구례군, 휴가철 피서지 행락질서 잡는다

불법시설물·무허가 영업 등 행락지 20개소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30여명 공무원 배치

구례군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주요 피서지에 대한 행락질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행락문화 조성에 나선다.

구례군은 지난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44일 간을 행락질서 확립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계곡인 토지면 문수골과 피아골, 백운산 계곡인 간전면 용지동, 산동면 수락폭포 등 주요 행락지 20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주요 행락지에 25명을 투입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휴일에도 총 30여명의 공무원을 배치,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시설물, 바가지요금, 무허가 영업 등을 특별 단속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미이행 여부, 하천·도로의

무단 점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함께 할 계획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섬진강 등에 안전요원 16명을 배치해 인명 피해 없는 여름휴가 보내기를 추진하며 코로나19 예방 관리도 같이 실시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행락지별로 화장실 등 공중이용시설물 정비와 안전점검을 마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에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인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휴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철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 내 코로나 유입을 차



단하기 위해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예찰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히 기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은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주된 산업이지만 지난해 수해와 함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관광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구례를 찾을 수 있도록 방역 및 행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구례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차 접종률이 50.53%로 전국 대비 약 21%가 높으며, 집단면역 형성으로 구례군의 모든 관광지를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안심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업무협약

보육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

화순군이 12일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시행사(대표 윤정식)와 업무협약을 맺고 입주를 앞둔 화순읍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설치하기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11월 문을 열 예정이다.

협약에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는 화순군에 어린이집과 부속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화순군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과 기자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일정 비율 보장

하기로 했다.

화순군과 현대힐스테이트의 업무협약 체결로 상대적으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화순군은 올해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규모의 삼일파라뷰 아파트 내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7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더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청년농업인 3D펜 교육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만 18세~39세 청년농업인 대상 선착순...다음달 17일부터 교육 시작

담양군은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3D펜 교육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담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9세의 청년농업인으로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다.

교육은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며, 교육 프로그램은 3D 기초과정 및 응용과정 등 총 10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3D펜과 프린터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평면 도형 연결을 통한 입체 구조제작, 3D 펜의 복합기법을 활용한 예술 조형물 제작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익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단계별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고,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교육현장과 연계한 강사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청년농업인들의 역량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061-380-34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24시간 관제 업무를 통해 지역사회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센터 관제요원 3명은 지난 달 극단적 선택 의심자, 실종자 발견, 음주운전자 검거 등에 기여한 공로로 나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센터는 지난 달 24일 오후 9시경 112신고센터와 연계돼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알람으로 극단적 선택 의심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지 주변 CCTV를 통해 의심자를 발견한 관제요원들은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로 소중한 인명 구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지난 2015년 5월 관제 업무를 시작한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서와의 실시간 영상제공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관제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화재 감시', '차량 도난·청소년 범죄 예방', '치매노인 실종 대응'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곡성군이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관 종합평가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은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한 만큼 민간이 주관하는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민행복지수 1위'를 군정목표로 6대 군정 운영방침을 수립해 군민체감형 군정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곡성군은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증명했다.

곡성군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의 100년 대계를 구체화한 핵심 전략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특화사업과 곡

성형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창의적 교육정책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차당첨방매켓, 곡성관광택시, 갤러리 107 등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관광 사업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 분야에서는 토란, 멜론, 백세미 등 지역 농산물 명품화 성과가 주목 받았고,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 등 모든 세대에 거친 촘촘한 그물망 복지정책이 돋보였다.

유근기 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국민행복지수 1위라는 군정 목표에 성공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앞으로도 누구나 꿈꿀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2020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단체장 부문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